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우리 당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2016년 12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로작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복, 다심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기신 위대한 인민을 위해 자기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당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전 과정이 인민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치는 멸사복무의 길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업과 생활의 전 과정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이 되게 하라.바로 여기에 모든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을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간곡한 당부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신 그날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우리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이다.